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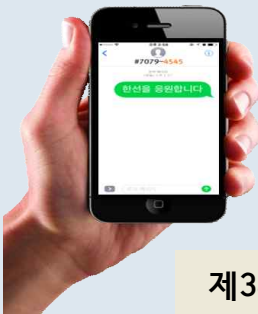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ESG 미래, 현황과 과제

[발제자]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일 시] 2021년 4월 15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64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최근 전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ment)의 약자이다. ESG는 주주이익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존 인식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됐다. 또한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기존의 발전 패러다임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이 어려워진 것도 기업이 ESG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됐다.

■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한다. 경제성장, 사회발전, 친환경의 세 부문이 선순환적 관계를 갖고 조화롭게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 K-ESG지수를 만들 때,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인 기준은 배제해야 한다. ESG가 이념이나 정치적 잣대로 하나의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ESG 논의는 다소 왜곡되고 있다. 기업 스스로가 친사회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친지배구조적으로 바뀌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ESG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강요보다는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 ESG의 논의 배경

- ◆ 최근 전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ment)의 약자이다. ESG는 주주이익 중심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존 인식의 반성으로부터 시작됐다. 또한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기존의 발전 패러다임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이 어려워진 것도 기업이 ESG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됐다.
- ◆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한다. 경제성장, 사회발전, 친환경 세 부문이 선순환적 관계를 갖고 조화롭게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 ◆ 세계 글로벌 투자 기관들도 ESG 기준에 의해 투자를 결정하는 추세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국전력의 1,600억원을 포함해 석탄 관련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했고 네덜란드 공적연금 또한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다. 마이크로 소프트와 애플, GM등도 RE100(Renewable Energy 100%,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50%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했다. 투자자의 기준이 단순히 주주나 기업의 이익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기준으로 바뀌고 있다. 뿐만아니라 구글은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선언했다.

◆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

- ◆ 자본주의 체제는 시장기능을 전제로 한다. 다만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반면, 사회주의는 시장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 실증적 사례가 공산화 이후 중국과 소련의 1인당 GDP 수준이다. 이들 국가의 1인당 GDP 수준을 보면 미국 대비 5%를 벗어나지 못했음은 물론 체제 붕괴전까지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이 사회주의가 몰락하게 된 이유이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는 발전을 거듭했다. 칼레츠키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를 자본주의 4.0이라고 명명하며 시장과 정부는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 ◆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을 기준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4단계로 나누면 한국의 자본주의는 정부주도형 자본주의인 국가자본주의이다. 국가자본주의는 동유럽국가나 중국 등의 체제전환형 자본주의 다음으로 정부의 역할이 강하다. 국가 자본주의 이후로는 독일 등 서유럽국가인 사회적 시장 자본주의, 그 이후 단계가 시장의 역할이 큰 미국형 시장자본주의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정부의 역할이 과도하게 높은 나라이다.

◆ ESG와 기업의 역할

- ◆ 과거 기업의 역할은 주주가 기업의 주인으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주주자본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뀌었다. 2019년 미국 CEO를 대변하는 BRT(Business Round Table)는 “기업의 결정은 더 이상 주주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직원, 고객, 사회 전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기업의 역할이 주주 중심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면서 기업의 CEO들이 기업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됐다.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주주이익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자본주의로 바뀌어 가고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란 소비자, 종업원 거래납품업체 등을 말한다.
- ◆ UN투자원칙은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만이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하도록 장려한다. 책임투자는 투자결정과 지배구조에 있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통합하는 전략과 실천을 의미한다. 즉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접어들면서 경영을 할 때, 기업의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환경부분을 같이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 ESG와 지속가능발전 과제

- ◆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성장, 사회발전, 친환경 세 부문이 선순환적 관계를 갖고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로 휴먼뉴딜, 포용적 성장, 공정성장 등이 있다.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은 인과관계가 아니다. 같이 발전하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환경이 같이 성장하겠다는 의미의 녹색성장과 녹색경제, 그린뉴딜과 같은 용어는 친환경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개념이다. 이제 ESG는 기업이 지속가능발전을 하기 위한 당연한 명제이다.
- ◆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국제적 기준에 뒤쳐져 있다는 것이다. 외국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기업경영에 ESG를 강조하나 우리나라는 아직 일부 기업만 ESG를 도입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과정에서 기업들도 시대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기업경영의 목표를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뀌어야 한다. 환경만을 강조하는 것이 ESG가 아니다. 기업은 사회적인 공헌까지 고려하며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가 선순환적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가능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의 역할이다. ESG는 친환경, 탄소제로 추구하고 함께 자본주의 체제내에서의 기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이다. 경제성장만을 주장하거나 환경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이 글로벌 기준에 부응한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에 동참하지만 그것이 사회발전과 친환경에서 같이 공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 2019년 United Nations-Convened Net-Zero Asset Owner Alliance가 설립되었다. 이는 2050년까지 net-zero를 달성하기 위한 35개 투자자 모임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ESG의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글로벌 투자기관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흐름이 기업 스스로 ESG 경영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규제적 K-ESG지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K-ESG 지수를 만들 때 유념할 것은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인 기준들은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ESG논의는 다소 왜곡되고 있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국내에선 기업 이사의 출신 등을 본다. 이런 지표는 이념적 특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는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K-ESG 지수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가 친사회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친지배구조적으로 변화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SG 환경 조성은 규제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